제2강 들뢰즈의 존재론 개관

◆1교시 : 세계를 이해하는 들뢰즈의 방식에 대하여

▲들뢰즈 존재론의 개관

-책 낭독-

이제 4장에 이르러서는 2,3장에서 논의한 존재론을 인식론으로 보완한단 말이죠. 실재론적 철학자에게는 항상 인식론적 물음이 던져지죠. 실존적 철학자가 이 세계에 대해서 더 근본 실존은 어떤 것이라고 말하면, 당장 뭐라고 물어보겠어요?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인식론을 보완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컨대 이 점은 소박한 실재론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이 경우 진리하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 실재라고 말했던 reality와 그것을 표현한 문장 사이의 correspondence, 상응으로 이해된다.

만일 존재들의 어떤 집합이 그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본질에 의해서 정의된다고 가정한다면, 예컨대 물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 어디에 쓰이든 관계없이 H_2O라는 식이죠. 이 집합들이 우선 주어져있고, 그것들이 세계에 대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궁극적 실재를 발견했다고 이야기할 때 이런 것이 되겠지요. 세상에 어떤 집합이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보는 세계는 이렇다는 식으로. 그것은 단순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세계는 닫혀있고, 전적으로 새로운 존재의 집합들이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할 수 없다는 존재론적인 가정으로는, 이런 식의 존재론적 가정은 어찌 보면 중세나 근대에. 그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하기 간단하지 않지만, 나왔던 입장인데. 아리스토텔레스의 유한주의도 이런 경향이 있고. 사태를 이렇게 단순하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겠지요.

이것은 이야기하기 위해서 아주 단순화한 거니까. 그런, 존재론적인 가정은 이제 인식론적 가정과 짝을 이룰 수 있겠지요. 한편으로는 진의의 문장들. true의 문장이 있고. 문장이라는 말 보다는 명제가 정확하겠지요. 이 사람은 문장이라는 말을 썼는데, proposition이라는 말이 조금 더 정확하겠죠. sentence와 proposition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니까 “snow is white.”와 눈은 하얗다는 말은 다른 문장이지만 같은 명제입니다.

snow is white든, la neige blanc든, 독일어로는 schnee, das schnee ist weiβ든, 뭐든지 간 다 똑같은 명제인거죠. 문장으로는 전부 다른 거죠. 문장이라기보다는 명제가 더 적합할 거 같은데. 그 같은 상황에서 상응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www.artnstudy.com

어떤 실존적인 철학자가 극단적으로 소박한 견해에 동의할 지는 불확실하지만, 들뢰즈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절대 아니죠. 이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 becoming인데, 열림인데, 생성인데. 앞의 세 장이 닫힌 세계에 대한 그릇된 가정을 제거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면. 들뢰즈에게는 역시 베르그송적인 모티베이션이 참 강해요. 어떤 닫힘을 열림으로, 고정된 것을 생성으로, 결정론을 자유로.

그런데 이제 베르그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becoming으로 가다보니까, 흐름 flow만을 강조할 뿐 매듭지어지는 게 별로 없게 되요. 그래서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래서 베르그송의 생성, 존재론을 깔면서도 매듭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명료하게. 역시 이 사람은 그런 게 좀 강하고, 그래서 닫힌 세계에 대한 가정을 제거하려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죠.

▲수많은 진리 중의 '유의미한 진리'에 대하여

-책 낭독-

그럼 우리가 truth라고 표현되는 것은 대부분 trivial하다는 거예요. 재치 있는 주장인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시시껄렁한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책 낭독-

진리를 사실들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수없이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죠. 중요한 것은 그 중에서 뭐가 중요한 것이냐는 거죠. 뭐가 중요하고, 그게 왜 중요하냐는 거죠. 그게 왜 relevant하냐는 거죠. 보통 significant를 유의미라고 하는데, relevant는 상관적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유의미라고 하는 게 낫겠어요.

진리가 아니라 중요성과 유의미성이야말로 들뢰즈 인식론의 핵심적 개념인데요, 이런 맥락에서 실질적인 과제는 이 개념들로 하여금 주관적인 평가나 사회적 관례들로 환원되지 않도록 하는 것. 아까 이야기했듯이 게으르게 할 것 같으면 인간 다 죽어야지. 예를 들어서 다 주관적이라던가, 정치적 배경이라고 해버리면, 사회학적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도 철학적으로는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볼 때도, 예를 들어서 사회학적으로 보는 것, 철학적 관점, 경제학적 관점, 물리학적 관점 다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광수씨가 옛날에 『즐거운 사라』를 썼단 말예요. 그런 것은 철학적으로는 별 관심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사회학적으론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이에요. 왜 그 시대에 마광수 신드롬이 일어나고, 왜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고,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거든요. 10만부 팔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관점에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쪽 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게 몇

www.artnstudy.com

킬로그램이냐는 물리학적으로는 중요하죠. 그런데 사회학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물을 바라볼 때 각도, 맥락,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실재론적 입장을 표현한 사람들은 사회학적 설명을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주관이라는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이면이란 것을 보면. 그것이 리얼리즘이라는 입장인 거죠.

▲현실을 이해하기 위한 수학적 접근

-책 낭독-

그러니까 명제와 현실의 대응이 아니라 수학과 현실의 대응인 거죠. 그것과 비교해봄으로써 훨씬 사태가 명료해진다는 거죠. 이 경우 상호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학과 실재의 상응. 이것이 인식론적으로 중요한 문제지요. mathematics와 reality의 상응. 어떻게 세계가 수학적으로 잘 표현될까. 이게 신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 상응관계라는 것은 물리적 대상의 상태들과 그 대상의 본질을 포착하는 수학적 모델들에서의 '해'들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예컨대, 어떤 경제학 수식을 푸는 해하고 이 현실세계를 구성하는 경제학의 상태들의 관계. 예컨대, 지금 현재 금융자본주의가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금융자본주의가 나타나는 현상, 상태들과 경제학적 법칙들, 수학적 formula들의 상응관계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대조적으로 들뢰즈는 해(解)들보다는 정확히 제기된 문제들을 강조한다. 조금 단순화 시켜서 설명해보면 이것이 1이나 -1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해 두 개를 잡아야 하는가, 예를 들어, 이 두 개를 해로 가지는 문제가 뭐냐 하는 거죠.

해는 어떤 면에서는 나와 있는 거죠. 그 해들로 가지는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촛불시위를 하고, 예컨대 한나라당에서는 그것을 막으려고 여러 행동을 하고 신문기자들이 여러 입장에서 쓰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해들이에요. 이것들 전체를 해로 가지는 문제는 뭐냐는 거죠. 이건 엄청 어려운 문제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들뢰즈의 방식으로 새롭게 이해되는 세계

-책 낭독-

이것은 이제 4장을 읽어봐야 자세한 이야기가 등장하죠.

-책 낭독 -

www.artnstudy.com

그러니까 이제 2,3장이 잠재서의 존재론이라고 한다면 4장은 문제 problematic 문제론적 인식론을 갖고 있고, 아까는 공리적인 것과 differential을 대조했지만 이것과는 달리 axiomatic한 것과 problematic한 것을 대조하고 있죠. axiomatic한 것과 problematic한 것의 구분은 들뢰즈만이 아니라 현대철학에서 많이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다루는 것이 4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만약에 들뢰즈가 이런저런 철학적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재구성된다면 이 사람은 상당히 레디컬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과학이 말하는 natural law라는 것이 별것이 아니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주장인데, 과연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지켜봅시다.

그 다음, 분석철학은 그 배타성을 버리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계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사실 들뢰즈가 제시하는 이상의 나라는 이런 식의 세계라는 것, 이것은 들뢰즈로부터만 나온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이미 니체와 베르그송에 의해서 기본 모양새가 잡힌 거예요. 그게 화이트헤드와 들뢰즈를 통해서 상당히 세련된 방식으로 발전해 나온 거지.

이것을 연속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꼭 이 사람을 떼어다 볼 것이 아니고 니체,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들뢰즈로 내려오는. 조금 스타일은 많이 다르지만, 하이데거도 거기 낄 수 있지요. 데리다도 낄 수 있고. 하이데거, 데리다는 조금 사유의 구도가 다르고, 니체, 베르그송, 화이트헤드, 들뢰즈는 집결되어있어요. 그것을 좀 연결시켜 볼 필요가 있고.

그러나 어차피 현재로서는 들뢰즈가 이런 라인의 생각을 가장 세련되게 이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 보통 다른 주석가들 예컨대 영어나 회화, 문학, 언어 등 주체성을 많이 다루는데, 자기 의사는 여기선 그것을 다루지 않는다. 다른 종류의 주석지와 이 주석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는 것. 그렇지만 이 이론이 설득력 있게 갖춰지면 그런 분야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해의 이야기를 구하고 있죠. 들뢰즈를 재구성했다는 것. 가타리는 편의상 접어두었다는 것. 용어를 자의적으로 고정시켰다는 것 등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4장이 끝난 다음에 꽤 긴 양으로 용어를 따로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 사람이. Deleuze's words라는 제목으로 상당히 많은 비중으로, 용어를 자기 식으로 정확히 정의해주고 있어요. 상당히 동의합니다.

www.artnstudy.com

◆2교시: 다양체의 개념과 사물의 본질

▲들뢰즈에게 '다양체'라는 말의 역할은 무엇인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1장이 '잠재적인 것의 수학'이고, 다양체, 벡터장, 변환군. 이런 것들을 다루는데. 들뢰즈의 작품에 줄곧 등장하는 개념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각각의 책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게 있고, 일정기간 다루어지다가 안 나타나는 것도 있고, 이 사람의 생각 말년에 나온 것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multiplicity라는 개념은 이 사람의 초기 저작에서부터 등장해서 마지막 작품에 이르게까지 줄기차게 나온다는 점에서, 이 사람 전체의 사상을 꿰는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책 낭독-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2,3장의 핵심인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1장에서 개념적인 기반을 닦아놓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다양체'라는 개념은 과연 어떤 역할을 떠맡고 있는가? 들뢰즈에게서 다양체라는 것. 예를 들어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라이프니츠의 모나드(monad)처럼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데, 들뢰즈에게 다양체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 사람에 따르면, 다양체라고 하는 것은 essence개념을 대체한다는 거죠. 전통철학에서 essence라고 이야기한 것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책 낭독-

essentia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는 없고, 원래 'to ti ên einai' 아리스토텔레스가 쓴 구절인데, 하나의 말이라기보다는 하나의 명사구인데. 굳이 번역을 하면, 'the what is being'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것,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해서 '~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이런 의미의 구문인데, 희랍철학을 라틴어로 변환시킨 사람이 키케로(Marcus Tullius Cicero, BC 106~BC 43)죠.

키케로. 마치 불경이 쿠마라지바(Kumārajīva)에 의해서 한역이 된 것처럼. 그것과 비슷하게 희랍어를 라틴어로 정착시킨 대표적인 인물이 키케로인데, 키케로가 이것을 한 마디로 간단히 essentia라고 번역했죠. 그것이 이제 '본질(本質)'인데. 본질적인 특징이죠. 본질적인 진리들. 이것이 essence죠. essence라는 말은 전통철학에서 사물의 동일성을 설명해주는 핵심적인 개념인데, 그것을 들뢰즈는 multiplicity의 다양체의 개념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본질'의 의미

www.artnstudy.com

그리고 만약에 전통철학 같은 경우는 이런 본질이 여러 사물들에 의해 공유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물이 가지는 본질과 여러 사물이 공통으로 가지는 본질은 구분되죠.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여러 사물들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어떤 한 사물에 본질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이것은 사실 논쟁거리죠. 철학사의 논쟁거리고. 보통은 본질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물을 꿰어주는 것으로 이해되죠. 그래서 한 본질에 이런 공통의 소유는 여러 사물들이 하나의 본질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왜 그 대상들이 유사한지. 흔히 말하는 '개'라는 동물들은 비슷비슷한지. 나비라고 하는 것은 비슷비슷한지. 그에 대한 해답이라는 거죠. 그것은 그 사물들이 같은 본질을 갖기 때문에.

이 본질은 생물학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종'개념하고 통하죠. species.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으로 쓰는 eidos라는 말. 아리스토텔레스가 형상을 뜻할 때 이 말을 많이 쓰는데. 플라톤은 idea와 eidos를 같이 쓰고. eidos라는 말이 보통 형상이라는 말을 뜻하지만, 원래 이 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자신의 전문 의미를 집어넣기 전에 의미는 '종'이에요. 생물학적인 의미로 종. 그래서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는 species로 번역되죠. 스피시스.

왜 그런 사물들이 다른 사물들과 구별되는 하나의 자연 종, natural kind를 형성하는 지를 설명해준다.

-책 낭독-

어떤 사람이 인간 종의 구성원으로 만들어주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부르는 개별자들에게 공통되는, 그런 어떤 essence를 합리적 동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 rational animal이라고. 본질이 맞느냐 틀리냐는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죠.

▲특성과 유사성

-책 낭독-

우리가 보통 essence라는 개념을 통해 하는 말이죠. essence라는 개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뭔가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공유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 사물들이 resemblance, 유사성을 가진다는 거죠.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닌데, 꼭 그런 것은 아닌데 현대 사상에서는 resemblance라는 단어를 쓸 때는 어떤 이데아가, 모델이, 중심이, 패러다임이 존재하고 그것을 담는다는 뉘앙스로 많이 쓰죠.

resemblance라는 말은 그렇게 쓰여요. A1, A2, A3등이 존재할 때 이것의 모델이 되는 A라는 것이 있을 때. 그때 이것들이 A를 닮는다고 하는 거죠. 서로 닮기도 하고. 그럴 때 resemblance라는 말을 자주 쓰고. 밑에는 similarity가 나오죠. 9페이지 맨 밑에. 과정의 유

www.artnstudy.com

사성을 이야기할 때는 이 사람이 similarity라는 말을 쓰고 있죠. 이 사람도 사실은 현대사상의 그러한 논법들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구별해서 쓰는 것이라고 짐작이 되는데. 이 similarity라는 것은 본질을 전제하지 않은, 원형을 전제하지 않은 유사성이죠.

그림으로 말하면 어떤 소나무를 그릴 때, 소나무가 하나 있죠. 그림을 100사람이 그렸어요. 그럼 100사람이 그림을 그리면 100개의 그림이 저 소나무를 다 닮으려고 하겠죠. 이런 뉘앙스를 띠는 것이 resemblance이고 저런 원형을 전제하지 않는 서로 닮음. 이것을 보통 과정의 유사성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엔디워홀의 깡통을 그려놓은 작품. 캔들을 몰아놓은 것인데, 어떤 것은 캔의 색이 다르고 어떤 것은 글자 색이 다르고. 이 중에 어떤 원형이라는 것이 없죠. 조금씩 다른 거죠. 그런 것을 similitude, similarity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아마 그것을 염두에 두고 구분하는 것 같아요.

▲사물의 정의에 대하여 - 형태 발생적 과정(morphogenetic process)

-책 낭독-

어떤 본질주의 사고에서는 본질이 있어서 그 본질로 말미암아서 사물들 간의 유사성이 성립합니다. 하지만 들뢰즈에 따르면 그 형태들은, morphe들은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형성되는 거예요. 어떤 발생과정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는 genetical한 발생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morphogenetic process'라는 말을 쓰죠. '형태 발생적 과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시간대를 아주 길게 보면 형상들 자체도, 종들 자체도 진화하는 거죠.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소멸하는. 형태발생이라는 것을 두 가지 차원에서 쓸 수 있는데, 하나는 어떤 개별자들이 어떤 과정 속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이야기 할 수 있고. 더 근본적으로는 종 자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진화의 과정 속에서 탄생한다는 거죠.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죠. 그래서 morpho genetic process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이고.

그래서 다윈을 비롯한 현대 생물학자들에게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종이라는 것을 본질주의적으로 표상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코끼리는 영원히 처음부터 끝까지 코끼리이고 나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비인 것이지, 종과 종 사이가 섞이는 거, 반은 코끼리이고 반은 표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은 신화 속이나 상상의 세계에서나 존재하는 것이고.

그런데 다윈에 오면 전통적인 종(種) 개념이 파괴되고, '개체군(個體群)'이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population이라는 말로 표현하는데. 개체들이 군을 형성할 때 종이라는 것이지, 종이라는 essence가 애초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죠.

www.artnstudy.com